

가톨릭대 2019학년도 인문 3번

☞ (가)와 (나)를 활용하여, ‘대리 줄서기’·‘암표 매매’가 허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다수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해 있다. 자유시장 원리에 의하면, 시장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체제다. 시장은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보자. 정부는 국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사람을 찾아 임대하고자 한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 땅을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임대료를 주겠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람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그 땅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땅에 수익성 있는 상업용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말농장 계획을 가진 사람보다 이 땅의 시장 가치를 더 높게 매길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경쟁을 벌여 희소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매 상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이 열리고 있다. 관람을 원하는 이가 너무 많아 매번 매진이다. 그러다 보니 대리 줄서기와 암표 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연극을 공연하는 극단의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리 줄서기와 암표 매매가 왜 잘못이냐고? 누구나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 돈을 받고 줄을 서는 사람이나 암표상이 입장권을 손에 넣어 버린다면, 그 뒤에 서 있었으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을 서도록 하거나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문제될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리 줄서기와 암표 매매는 도덕성과 무관하므로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대리 줄서기 암표 매매 관련자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 재화에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사회적 효용을 높였으므로 그 공로가 칭찬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옹호자인 이들 경제학자들은 대변인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은 관람을 열렬하게 원하는 사람들로 관객석을 꽉 채워야 그 즐거움이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극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연극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최고 가격을 지불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다. 공연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릴 관객으로 극장을 채우는 방법은 대리 줄서기 서비스와 암표상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최고 가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사람이 입장권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셰익스피어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학자는 “일반적인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는 수요자가 그 재화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지불하겠느냐는 의사로 가늠된다. 하지만 그런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와 (나)를 활용하여, '대리 줄서기' · '암표 매매'가 허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독해]

암표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시장(암표 시장) ⇒ 효율적 자원 배분
이를 비판하는 논리: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시장 거래	약자 배제, 공정성 훼손	B
대상	암표 거래	열정 있으나 자금력 없는 약자를 부당하게 배제	b

[예시답안] 587자

암표 매매나 대리 줄서기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시문 (가)의 주장에서 처럼,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암표나 대리 줄서기는 공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므로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 전체 효용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제시문 (나)에는 암표 거래가 약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자는 다른 사람보다 공연에 대해 더 열망하더라도 암표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 공연 관람을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 즉, 시장 제도의 무분별한 확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가장 높은 효율성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누릴 권리가 배분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 줄서기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일 수 있다. 공연을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가 대리 줄서기와 같은 편법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 (1) 제시된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분석력을 평가한다.
- (2) 범주 오류를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한다.
- (3) 주어진 논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4)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나타낼 수 있는지 표현력을 평가한다.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가)에는 자유시장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경매이다.
- 제시문 (나)에는 대리 줄서기·암표를 통한 연극 입장권 구입 문제가 나타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대리 줄서기·암표 매매를 인정하고 있으며, 극단 대변인과 한 경제학자는 대리 줄서기·암표를 비판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서 대리 줄서기·암표 매매를 인정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가)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이를 대리 줄서기·암표 구매의 방식으로 연극 입장권을 구매하는 사례에 곧장 대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① 재화의 시장가격과 재화 가치의 불일치 ② 공정성 훼손을 비판해야 한다.

[대학 채점기준]

1. 기본사항

-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 (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
- (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
 - 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 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 ※ D=D0
- (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
 - 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 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

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8) 제목이나 이름 등의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내용

● 채점 방향

(1) 자유시장주의자가 ‘대리 줄서기’ · ‘암표 매매’ 허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자유시장 원리인 경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2) ‘대리 줄서기’ · ‘암표 매매’는 공정성을 해치며, 자유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경우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 채점 포인트

(1) ‘대리 줄서기’ · ‘암표 매매’ 옹호의 논거로 활용된 자유시장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가 ‘대리 줄서기’ · ‘암표 매매’ 옹호에 활용되었을 때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 경우 내용점수 A등급 이상 부여

(2) 효율적인 자원 분배 방식으로 제시된 (가)의 경매 원리를 (나)의 ‘대리 줄서기’ · ‘암표매매’ 옹호 논리로 연결시키지 못한 경우: 2등급 감점

(3) ‘대리 줄서기’ · ‘암표 매매’ 옹호 논리가 모든 재화를 하나의 범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4) 옹호 논리가 줄서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이 지적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3.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분량

① 6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②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00자~4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350~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⑤ 350자 미만 : F

[대학 예시답안] 596자

(가)의 자유시장 원리에 따르면,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 방식은 경매다. 연극 관람의 경우, 입장권을 분배하는 기준은 누가 연극을 둘러싸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가이며, 이는 결국 경매와 마찬가지로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가로 환원된다. 대리 줄서기와 암표 매매는 연극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입장권이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분배 방식이라는 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연극 관람의 열망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여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술 재화의 가치가 가지는 고유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재화를 하나의 범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대리 줄서기와 암표는 자원 분배에 있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줄서기라는 공정성을 훼손한다. 극단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방식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줄을 선 사람보다 부자를 우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